한국고전연구 22집/한국고전연구학회/2010/391-424쪽

陸用鼎의 記夢 연작 연구

하지영*

<차 례>

1. 서론
2. 육용정의 생애와 자의식
3. 기몽 연작의 구조 및 특징
4. 기몽 연작에 나타난 꿈과 그 의미
 1)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메타포
 2) 억압, 그러나 회귀되는 욕망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세기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보여주는 육용정(陸用鼎 : 1843-1917)의 기몽 연작을 검토한 것이다. 총 9작품으로 구성된 기몽 연작은 전통적인 한문산문 양식을 차용하면서도 그 안에 다양하게 일탈과 변주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글과 글을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연작 구도, 그리고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양식으로 재편성하는 방식은 기존의 한문 산문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다

기몽연작에서의 꿈은 <설몽>에서의 논해지고 있는 꿈과, 환진·곡흠으로 허구화된 꿈으로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분석될 수 있다. 전자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가 강조되어 나타나 극변하는 당시 시대상에 대한 메타포로 이해할 수 있다. 또 후자는 기존의 억압기제를 해제하고 본연의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작자의 욕구로 독해된다. 이전 시대 한문학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자기 내면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이 시기에 나오는 것은 흥미롭다.

이러한 기몽 연작은 이전 18세기부터 시도된 문예의 변화, 그 연장선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 및 문단의 판도가 달라지는 19세기 말 시대적 상황이 그 일탈을 자극했으리라 생각된다.

* 이화여대

www.kci.go.kr

주제어 꿈, 욕망, 기몽, 19세기, 육용정, 의전자

1. 서론

꿈은 문학에 있어 원천적인 소재를 제공한다. 한문학에서도 꿈에 대한 기록은 일정한 전통을 형성하고 하여, 그 안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발견되기도 한다. 특히 한문학 작자층 사이에서 공자가 주공에 대한, 두보가 이백에 대한 꿈을 꾼 것은 중요한 모티프로 자리 잡아, 꿈에서 학문적 깨달음이나 좋은 시구를 얻어 그것을 기록하는 방식이 기몽류 작품에서 흔히 발견된다. 꿈에서 망자나 고향을 보고서는 그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것 역시 자주 볼 수 있는 방식이다. 한편 현실에서 가볼 수 없는 산수를 노닐고는 유기(遊記)형식으로 꿈에 대한 기록을 남기거나, 더 나아가 허구를 빌어 가상인물을 만나고 이계를 체험한 것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한 패턴에도 불구하고, 기몽류 작품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기록이기에 문학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논하기는 분명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문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조선후기에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기몽류 산문이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정경순(鄭景淳 : 1721~1795)은 유배지에서 평소 자신이 꾸었던 꿈들을 <집몽(集夢)>이라는 제목 하에 모아놓았고[1], 목만중(睦萬中 : 1727~1810)은 〈경몽(儆夢)〉 에서 자신의 악몽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해몽을 첨부하였다.[2] 또 윤기(尹愭 : 1741-1826)는 <기몽(記夢)>에서 무명자(無名子)

1) 鄭景淳, 『修井遺稿 四辛錄』, 규장각 소장.
2) 睦萬中, 『餘窩文稿』卷42, 규장각 소장.

www.kci.go.kr

자신의 일생을 반추하고, 저승사자를 만나 평소 선산(先山)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을 받는 꿈을 기록하였다.[3] 이러한 지극히 사적인 꿈에 대한 기록, 그리고 삶에 대한 반추는 전통적인 한문산문의 영역을 일탈하여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였던 조선후기 한문학의 변화상 안에서 논해질 수 있을 것이다. 소소한 일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찬묘지명 등에서 보이는 자아에 대한 표현 욕구의 발산[4]이 기몽류 작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꿈에 대한 기록 역시 작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 그리고 문예의 변화상에서 함께 거론될 여지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심 하에 육용정(陸用鼎 : 1843-1917)이 꾸었던 꿈과 그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주목해보고자 한다. 육용정은 주로 사학계에서 그의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에 관하여 고찰된 바 있으며[5],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기몽 연작은 신재홍에 의해서 학계에 소개되어, 이후 소설론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6] 또 최근에는 육용정의 현실인식을 조명하고 그의 시문

3) 尹愭, 『無名子集』冊13, 한국문집총간.

4) 안대회, 「조선후기 자찬묘지명 연구」, 『한국한문학회』31, 한국한문학연구, 2003년, 247~249면.

5) 백승종, 「宜田記述을 통해서 본 陸用鼎의 開化思想」,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4, 1~56면. 민회수, 「1880년대 陸用鼎의 현실인식과 東道西器論」,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1~76면. 김문용, 「1880년대 후반기 동도서기적 개화론의 一端에 대한 검토-육용정의 『의전기술』을 중심으로-」,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교류』, 국학자료원, 2004, 167~186면.

6)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405~428면. 김경미, 『소설의 매혹』, 월인, 2003. 신재홍은 기몽을 허구론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유학자로서의 전통적인 의식과 허구를 허구 자체로서 인정하려는 진전된 의식이 상호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개되었다고 밝혔다. 김경미 역시 신재홍의 논의를 수용하여 꿈과 허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글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자가 모두 밝혔듯이, 육용정의 글에서는 소설이나 허구에 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육용정의 기몽을 소설론으로 독해한 것은, 텍스트 자체의 성격에 기반을 둔 것이기 보다는, 연구자의 의도가 강하게

www.kci.go.kr

이 이러한 인식체계와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 살펴본 연구가 제출되었다.[7] 본고는 기존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작자 육용정의 사유 및 문학사적인 맥락과 관련하여 기몽 연작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기몽연작은 19세기 말 한문 글쓰기 양식의 변모를 보여주며, 당시 한문학 작자층의 복잡다단한 내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주목할 만한 텍스트이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한말사대가에 집중되어 있는 19세기 말 한문학 연구에서 그 외연을 넓히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문학사적 흐름과 별도로 18세기 한문학 연구가 주로 문예적 취향을 보여주는 개성적 글쓰기에 집중된 반면, 19세기 중후반에는 주로 우국문학과 같은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텍스트에 주로 연구가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문학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문제를 떠나, 19세기 중후반에 개성적 글씨기가 어떠한 식으로 계승,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에서 육용저의 <기몽연작>에 관하여 주목하게 되었다.

2. 육용정의 삶과 자의식

기몽 연작은 의전자(宜田子) 육용정이 꾸었던 실제 꿈에 대한 기록이자 그의 몽상을 담은 글로, 이 가운데 그의 삶과 내면이 표출되어 있다. 이에 기몽 연작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자의 삶과 자의식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육용정의 고향은 충청도 청산현(靑山縣 : 현 沃川郡)으로 51세 이전에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7) 황재문, 「의전 육용정의 문학과 현실인식」,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33-67면.

www.kci.go.kr

는 주로 이곳에 거주하였다. 그의 집안은 한미한 무반 출신으로 대대로 관직에 나아간 자가 드물었으나 그의 조부 때에 와서 재산을 증식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이룰 수 있었다. 육용정은 충분히 유복한 환경에서 생장하였으며 상경 이후의 생활도 고향에서의 지원 하에 가능하였다. 또 육용정의 동생 육용필(陸用弼)은 진사시에 합격하기까지 했는데, 그는 재산을 많이 모아 만석꾼이 되었다고 한다.[8] 육용정의 집안은 19세기 말 불안한 정치상황에서 오히려 승한 가문으로, 육용정과 그의 아들 대에 대거 서울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족조부(族祖父) 육상지(陸相贄 : 1763-1800)에 와서야 비로소 유학을 숭상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그의 집안은 성리학적인 가통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육용정은 젊은 시절 성리학을 학습하고자 하는 열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1875년 그는 기호학파의 임헌회(任憲晦 : 1811-1876)를 찾아갔는데, 이 경험은 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임헌회의 문집에서 육용정과 관련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 역시 이는 자신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 자책하였다.[9] 기실, 그는 독실하게 유학의 가르침을 내재화하기보다는 잡학과 당시 신문물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부친 육병규(陸炳奎 : 1811-1849)와 외종숙부 이병숙(李秉善)은 산수(算數), 성력(星曆), 경제(經濟) 등의 잡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이는 육용정에게도 영향을 미쳐 서양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스로 책에 대한 벽(癖)이 있다고도 하였는데[10] 폭넓은 독서 경험을 바탕

8) 육용필의 아들 육종윤은 육용정의 양자로 입양된다. 육종윤의 아우인 육종관(陸鍾寬)은 육영수(陸英修)의 부친이기도 한데, 형들이 상경하여 출세한 반면, 그는 고향에 남아 미곡 도매상, 금광 등의 운영하면서 하면서 재산을 많이 증식하여 당시 충북 최대의 갑부로 칭해지기도 하였다.

9) <弘毅齋序>, 『宜田文藁』, 권1, 34~35면.

www.kci.go.kr

으로,[11] 지방지식인으로서는 당대에 변화하는 문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일 수 있었다. 또 “수년 전에 벼슬에 뜻을 두어 한양에 떠돈 적이 있었다.”[12]고 그가 자술하였듯, 젊은 시절 과거 시험에 응시하고자 서울에 왕래하면서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의 나이 42세~46세에 저술된 『의전기술(宜田記述)』에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국론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19세기 후반의 개화파나 동도서기론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체계적이고 정리된 저술로 논해진 바 있다.[13] 김문용은 육용정이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로 나누어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났으며 아울러 화이론의 구도 역시 약화시켜 기존의 동도서기론과는 차이점을 가진다고 지적하였다.[14]

1894년 그는 당시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였던 그의 양자 육종윤(陸鍾允 : 1863-1936)의 덕택으로 능참봉을 제수 받아 서울로 이주한다. 1896년 육종윤이 아관파천으로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그의 짧은 관직 생활도 마감하게 되는데 갑오농민전쟁으로 귀향마저 어렵게 되자, 계속 서울에 거주하면서 손자 육정수(陸定洙)를 직접 기르게 된다. 서울에 있긴 하지만 이때의 삶은 유배지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계은자기(桂隱自記)>[15]에서 그는 서울의 구석진 곳, 계동(桂洞)에서 유폐되어 하는 일 없이 시문 창작만을 일삼고 있는 자신의 삶을 조소하고 있다. 『의전문고』에 수록된 작품 중 상당수는 이곳에서 창작된 것으로 추측된다.[16]

---

10) <自警說>, 『宜田文藁』, 권1, 100~102면.

11) 김문용은 육용정의 지식 습득 통로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서적 뿐 아니라, <한성순보>와 이<한성주보>를 꼽았다. 김문용, 위의 책, 172면.

12) <記夢>, 『宜田文藁』, 권2, 89면.

13) 민회수, 위의 책, 16면.

14) 김문용, 위의 책, 178~185면.

15) <桂隱自記>, 『宜田文藁』, 권1, 94~95면.

www.kci.go.kr

1912년에는 보성사(普成社)에서 자비로 『의전문고』, 『의전시고』, 『의전속고』, 『의전기술』를 출간하게 된다. 이때 손자 육정수가 발행인으로 문집 출간을 주관하는데, 그는 이에 앞선 1908년 『송뢰금(松籟琴)』[17]이라는 신소설을 쓰기도 하여 조손간의 문학적 영향관계가 주목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육용정은 전통적 사유체계를 가지면서도 신문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지식인이었다. 그의 집안이 전통적인 가학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당시 사회 변화에 대하여 다른 유학자들보다는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리라 추측한다. 더구나 정계에 진출하였던 그의 아들을 통해 변화되는 사회상을 더욱 즉각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문학에도 반영되어 전통적인 가치관과 권위적인 글쓰기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약장수, 거지 백정 등과 같은 인물을 입전하기도 하고, <李聖先傳>에서는 남색(男色)을 즐기는 선비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 너희 아버지는 의기(氣義)를 숭상하고 호방하여 큰 뜻이 있었단다.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대장부는 후대인들이 나의 행적을 기술하게끔 해야지, 어찌 녹록하게 글쓰기나 일삼고 고인의 지난 자취나 외울 것인가.”하였다. 또 과거장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말하기를, “이는 어린아이 장난일 뿐이다. 어찌 아이들하고 진취를 다투고 장단을 겨룰 수 있겠는가. 뜻이 높은 자는 반드시 하지 않는다.” 하였다.……이에 마음껏 술을 마시고 빈객을 모아, 날마다 술에 취해 호탕하게 지냈단다. 술을 많이 마셔 크게 취하여서는 말과 웃음소리가 드높아 소리가 좌우에 진동

16) 『의전문고』 중 저술 시기가 기록된 작품은, <기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894년 이후로 명시되어 있다. 또 <계은자기>에 고향 고택에 남아 있는 자신의 저술을 수습할 길이 없음을 탄식한 것을 볼 때, 문집 내 작품은 대부분 상경한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짐작한다.

17) 陸定洙, 『松籟琴』, 博文書館, 1908(『新小說·飜案(譯)小說 2』, 아세아문화사, 1978

www.kci.go.kr

하였으니, 참으로 우뚝한 인걸이었지.[18]

그의 <본생고백연부군행략(本生考白蓮府君行略)>은 전통적인 부친 행장에서 표현되는 유가적 미덕은 축약하고, 대신 이인(異人)의 형상을 부각하고 있어 독특하다. 일곱 살에 부친을 잃어 그에 대한 기억이 없기에, 아버지의 형상은 어머니를 통해 소환된다. 글을 읽기 싫어하고 술만 마셨던 삽화를 나열한 다음, 이를 통해 기개 높은 광사(狂士)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유교적 인간형에서 비껴나가는 것으로, 이전의 부친 행장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유형이다. 실제로 그의 부친이 이런 삶을 살았던 데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조선 후기 산문에서 나타나는 이인 형상이 부친 행장에까지 들어온 것은, 당시 유교적 사유의 해체가 가속화된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 그가 유가적 전통이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며 또 변화하는 시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던 작자였기에 가능한 서술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초야에 머물고 아관파천 이후에는 서울에 유폐된 신세가 되었기에 그는 변화하는 사회의 중심에 서지 못한 채 경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육용정은 스스로를 '무용지물(無用之物)'[19]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남다른 현실인식과 문학적 재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사회에 유통시키지 못하는 답답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당시 김윤식(金允植), 김택영(金澤

18) <本生考白蓮府君行略>, 『宜田文稿』, 권2, 45~46면, 汝父尙氣義 恢廓有大志 不甚喜讀書 嘗曰 大丈夫當使後人記傳吾之行蹟可也 安可碌碌事刀墨 誦古人之陳迹乎 又不喜赴場屋 曰 此兒戱耳 豈可與兒輩爭進取 轎長短也 志高者必不爲之……因縱酒會賓客 日以飮酒 自放焉 方其劇飮大醉 言笑軒昂 音動左右 眞箇翩翩人豪也

19) <文斐傳>, 『宜田文藁』, 권2, 104면, 子則非文非儒非達 直爲一聖世之無用件也

www.kci.go.kr

榮), 정교(鄭喬), 황필수(黃泌秀) 등 당대 저명인사들과 교류를 맺어 그들과 글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이는 주로 그의 청탁으로 받은 서발문이나 이들 명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글에 국한된다.[20] 실상 그는 당시 주류에 위치하지 못하였으며 한미한 집안과 지방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폭넓은 교유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는 시에서 "계속되는 병 때문에 편안할 날 적고 또한 벗들과 소원하여 소식도 느리네."[21]라고 하면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유폐되었을 당시 그는 전문적인 대작(代作)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시집자서(詩集自序)>와 <송현구인회서(松峴九人會序)>가 바로 그것이다. <시집자서>는 안정원(安鼎遠)의 문집의 자서를 대신 써준 것인데, 이 글은 그의 『애석집(厓石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에도 수록되어있다. 여기에는 대작(代作)이란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내용도 다소 축약되어 있다. <구인회서>는 이산(二山) 김군(金君)이란 자를 대신해서 지은 글로, 당시 관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회의 서문이다. 본문에 '구인회 회원들이 나(二山)에게 서문을 서달라고 청했다.'는 내용을 볼 때 원래 서문을 쓸 것을 부탁받은 자가 다시 육용정에게 청탁해서 이 글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탁자와 글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두 글 모두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수록하기에는 불편한 글임에도 이를 무릅쓰고 『의전문고』에 그대로 수록한 것은 흥미롭다고 하겠다.

그의 교유관계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한시에서도 알 수 있다.

---

20) 김윤식은 육종윤의 청에 따라 <宜田幽居記>, <宜田記述序> 등을 써주었다. <送滄江金君于霖序>은 김택영이 사직하고 떠날 때 육용정이 쓴 글이지만 평소 김택영과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나 감발해서 쓴 글이라 스스로 밝혔다. 또 『宜田續稿』의 <大東歷史序>의 경우에도 실제 『대동역사』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1) <自題>, 『宜田詩稿』, 30면, 從仍病故寧時少 亦闊朋遊信息遲

www.kci.go.kr

다른 사람과 창수한 시나 시회에 참석해서 쓴 시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대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혹은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외로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작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일반적인 다른 한시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할 때 매우 특징적이라 하겠다. 특히 <자술(自述)>, <자상(自傷)>, <자탄(自嘆)>, <자제(自題)>, <만음(漫吟)>, <만제(漫題)> 등의 시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한시에서 육용정은 자의식을 강하게 표출시키고 있다.

즐겁기만 한 남들은 모두 양주(揚州) 학을 타는데	全歡人盡乘揚鶴
소견이 좁은 나는 우물 안 개구리로세	小觀吾惟做井蛙
취한 듯 미친 듯 마음이 불안하니	如醉如狂神靡定
눈앞에 보이는 사물마다 슬픔을 자아내는구나.[22]	眼前無物不關懷

어찌해서 학도 아니고 기러기도 아닌	有何非鶴非鴻
날개 꺾인 커다란 새 한 마리가	折翅一大鳥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져 어지러이 뛰고 있나.[23]	誤墜泥濘亂跳踐

육용정은 급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그 중심에 위치하지 못하고 소외된 자신을 반복해서 자조하였다. 원래 타고난 자질은 비범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잘못 만나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이에 그가 위치하고 있는 실제적 공간 및 정신적 공간은 모두 우

22) <自歎>, 『宜田詩稿』. 36면. 양주 학은 《연감유함(淵鑑類函)》에 나오는 고사로,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데 어떤 이는 재물을 많이 갖고 싶다고 하고, 어떤 이는 양주 자사(揚州刺使)가 되고 싶다고 하고, 어떤 이는 학을 타고서 노닐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때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하기를 "나는 허리에 십만 금을 차고 학을 타고서 양주로 날아가고 싶다."고 한데서 나온 말이다.

23) <自評>, 『宜田詩稿』, 162면.

www.kci.go.kr

물 혹은 구덩이와 다름없는 것이다. 이 안에서 그는 술에 취한 듯 미친 듯 불안해하며 몸부림치고 치고 있지만 벗어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육용정은 반복적인 시회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시정을 공유하는 대신, 유폐된 공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방식에 더 익숙하였다고 하겠다. 이는 그가 시를 공적인 교유를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사념을 해소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통과 변화,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미묘하게 갇힌 채 강한 자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기몽 연작에서도 발견된다. 기몽 연작에서 우리는 한문 산문의 전통적 양식을 수용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변주를 시도하였으며, 그 안에 자신의 현실 인식 및 복잡다단한 내면을 표출하고 있는 육용정과 마주하게 된다.

3. 기몽 연작의 구조 및 특징

강한 사회적 담론을 제시한『의전기술』과 달리, 기몽 연작은 지극히 개인적인 몽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몽상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담론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현실 인식과 복잡다단한 내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육용정의 기몽 연작은『의전문고』잡저(雜著)에 실려 있는 <기몽(記夢)>, <설몽(說夢)>, <견몽(遣夢)>, <몽자대(夢者對)>, <의전자전(宜田子傳)>, <문비전(文斐傳)>, <몽환진전(夢幻眞傳)>, <진장유전(眞長孺傳)>과 <안두총담(案頭叢談)>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존 연구에서 <안두총담>은 배제되었으나, 내용 상 위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및 갈

www.kci.go.kr

등 구조가 유사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드러나고 있기에 함께 보고자 한다.[24] 무엇보다도 <안두총담>은 '꿈'에 대한 해석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이 고찰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기몽>은 서두에서 1884년에 꾼 꿈이라는 기록이 있어 작자 나이 41세 때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작품들도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 대부분 이 시기를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측한다. 『의전문고』내 작품이 대부분 상경 이후 작으로 추정되며, 또 <의전자전>에서 관직 생활에 대한 일화가 나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육용정이 능참봉직에 제수되었던 1894년 이후까지 그 창작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각의 한문단편들은 독립적면서도,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져 나가 마치 미리 구도를 짜놓고 글을 쓴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연작의 첫 작품인 <기몽>은 의전자가 꾸었던 꿈에 대한 소상한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꿈의 전말을 기록하고, 뒤에 그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길을 헤매고 낯선 집에 들어가 봉변을 당하는 과정,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면서 자신이 평소 근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책하는 것은 목만중의 <경몽>에서의 방식과 유사하다.

이러한 그의 꿈 이야기는 나머지 8개의 글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설몽>에서는 <기몽>에서 논의하였던 '인상지설(因想之說)'을 확대하여 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인상지설은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진(晉) 위개(衛玠)의 논의이다. 윤기 역시 위개의 논의를 인용하고 여러 가지 꿈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여 <몽설>을 지은 바 있

24) <안두총담> 바로 뒤에 수록된 <안두총설(案頭叢說)>의 경우, 부귀는 다 운명에 정해진 것이기에, 쓸데없이 남에게 부림을 받고 물건으로 근심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피력한 일종의 논설문이다. 제목이 <안두총담>과 유사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내용상 어떠한 유기성이 없기에 기몽 연작에서 제외하였다. 더구나 어떠한 허구적인 설정이 없다는 점에서 기몽 연작과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www.kci.go.kr

다. 이외에도 『성호사설(星湖僿說)』과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와 같은 유서(類書)에서도 기존의 논의들을 인용하여 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전배들이 꿈에 대한 설도 모두 인상으로 돌아가지만 명확하게 말한 것이 없었다.'[25]는 언급은 육용정이 이와 같은 글에 대한 독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몽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견몽>에서부터는 허구가 개입하여, 진장유(眞長孺), 환진(幻眞), 문비(文斐)가 등장한다. 이 세 인물은 각각 유가의 도, 꿈, 문학을 상징한다. <견몽>에서 진장유는 <설몽>의 논의를 반박하여 평정한 마음을 가져야 정몽(正夢)을 꾼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에 의전자는 축문(逐文)을 써서 몽신(夢神) 환진에게 이별을 고한다. <몽자대>는 문신(文神)이 꿈에 나와서 어떻게 환진을 버릴 수 있는지를 따지며, 그리고 조만간 자신마저도 버릴 것이니 먼저 떠나겠다고 하는 것을 의전자가 겨우 만류하면서 끝을 맺는다. 이러한 이별의 통고, 저항, 그리고 화해의 과정은 한유의 <송궁문(送窮文)>, 이규보의 <구시마문(驅詩魔文)>의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의전자전>, <문비전>, <몽환진전>, <진장유전>의 네 작품은 의전자, 문비, 환진, 진장유를 각각 주인공으로 한 가전체 형식의 글이다. 입전한 인물에 대한 가계 소개라든가 관직생활 등의 사건구성은 기존의 가전체 문학과 별반 다르지 않다. 중간에 새로운 사건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진장유의 질책으로 인한 환진과의 이별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라쇼몽(羅生門, らしょうもん)』처럼 사건을 인물별로 재구성함으로써 저마다의 입장과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설정 및 효과는

25) <說夢>,『宜田文藁』, 권2, 90면, 因想之說 尙矣 前輩於說夢 蓋歸之因想 然無明言破得

www.kci.go.kr

한문 산문 전통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진장유전>에서 중국의 정세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종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혼란스런 정국에서 진장유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어 전체 작품은 미완성작이라는 느낌을 준다. 편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작자의 관심이 진장유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지 않다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안두총담>에서는 의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같은 궁에 사는 두 귀신인 왕리(王(天+里))와 곡흠(谷仪)의 갈등과 화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앞서의 인물과 갈등구조를 반복해서 재현한 것이다. 아주 짧은 편폭의 산문으로 대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여기서 문비의 인물형은 등장하지 않는데, 기몽 연작의 갈등 구조에서 주축이 되는 인물이 진장유와 환진이기에 다시 압축된 글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문비는 자연스럽게 환진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기몽연작은 기문, 논설, 축문, 그리고 가전체와 같은 전통적인 한문산문 양식을 차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양하게 일탈과 변주를 시도하고 있다. 우선 글과 글을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연작 구도, 그리고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양식으로 재편성하는 방식은 기존의 한문산문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다. '붓을 잡고 크게 웃으며 쓰노니, 이것으로 훗날 호사자들이 포복절도하게 하는 글로 삼겠다.'[26]라고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기몽 연작은 그 창작 의도에 희작성이 다분하다고 하겠다. 또 <기몽>과 <견몽>을 제외하면, 입몽과 각몽 과정이 없고, 꿈이 단지 문학적 장치를 넘어 중심 제재로 확대되며, 나아가 꿈 자체를 의인화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몽유록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지점이다. 끝으로 꿈과 문학,

26) <遣夢>,『宜田文藁』, 권2, 96면, 執筆大呵而書之 以備他日好事者噴筍之資焉

www.kci.go.kr

도와 같은 추상적 개념과 자신마저도 허구화시키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연작구도와 꿈에 대한 관심, 상상력은, 이전 시대에 '항해자(沆瀣子)'로 자신을 허구화하여 상상의 공간을 경영하는 주인으로 형상화하였던 홍길주(洪吉周)의 『숙수념(孰遂念)』을 연상하게 한다.

이처럼 기몽연작은 이전 시대부터 연암과 항해에 의해서 시도된 권위적 글쓰기의 해체, 그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점차 문단의 판도가 달라지는 19세기 말의 시대적 상황이 그 일탈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육용정의 문학과 당대 개화기 문학, 신소설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좀 더 고구해야할 부분이 있겠지만, 기몽 연작에서 전통 한문 양식의 변화가 더욱 확대된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4. 〈기몽〉에 나타난 꿈과 그 의미

기몽연작에서의 꿈은 두 가지 층위에서 논해질 수 있다. 기몽연작의 두 번째 작품인 <설몽>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꿈과 <견몽> 이하에서 환진, 곡흠으로 의인화 되고 있는 꿈이다. 전자에서의 꿈은 육용정의 전반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후자에서는 육용정의 내면의식, 즉 자아와 욕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살펴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그 성격이 교접되기도 하나 양자는 다른 층위에서 논해져야 한다.

1)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메타포

육용정의 작품에는 꿈에 대한 기록과 논설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의 꿈에 대한 관심은 바로 기몽연작을 견인하는 힘이기도 하

www.kci.go.kr

다. 그렇다면 육용정은 어떠한 의미로 꿈을 언급하고 있는가.

생각하건대 '想'이라는 글자는 위는 '相', 아래는 '心'으로 되어 있다. '相'은 '象'이고, '心'은 '火'이다. 어쩌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불을 형상하는 것은 혹 想이 아니겠는가. 因은 참으로 이처럼 파자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다만 '因由'의 因일 뿐이다. 그러나 物은 그 원인이 없는 것이 없다. 불은 物로 인하여 생겨나고, 物이 다하면 사라지니, 그 생겨나고 그 사라지는 것이 본래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는 것이다. 꿈 또한 상념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상념이 끊기면 없어지니, 그 존재하고 없어지는 것이 본래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는 것이다. 불과 꿈은 이미 모두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物과 상념이 원인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 물과 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어떻게 미루어 구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몸 역시 우리 소유가 아니라 잠시 인하는 것이며, 이 세상 또한 하나의 큰 꿈과 같아, 여환(如幻)에서 살아가며, 모인 사람들이 몽롱한 중에서 움직이는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 조용히 생각해보건대 천하 만물은 모두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으니, 그 없고 있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존재하고 사라짐은, 서로 텅 빈 곳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마침내 설을 지어 보관하여 후일 저승의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질정하고 또 좌우에 이러한 경지를 깨달은 자와 함께 하고자 한다. 27)

27) <說夢>,『宜田文藁』, 권2, 91~92면, 竊惟想之爲字 上相下心 相者 象也 心者 火也 豈象火於空曠有無之境者 其或想乎 因固無如是之可解 而直是因由之因而已然物莫非有其因焉 夫火因物而生 物盡則滅 其生其滅 本非自有 有所因焉 夢又因想而存 想絶則亡 其存其亡 本非自有 有所因焉 火與夢已俱非自有 其有爲物想之所因而有焉 則彼物想之生滅存亡 其誰有之 而其因爲何推而求之 又安知吾之身 亦非吾之所有 有暫因焉 而此世亦猶一大夢 生奇如幻 聚人在乎朦朧中輪轉也耶 靜言思惟天下萬物 摠之爲無而有有而無 其無其有生滅存亡 互爲相因於空曠無窮之境者也 遂爲說而藏之 以待他日就質於玉京香案之前 而且與其左右有悟于斯境者 共之焉

www.kci.go.kr

‘꿈’에 대한 해석이지만, 여러 차례 비유가 중첩되어 이에 대한 독해가 싶지 않다. 그는 꿈이 상념으로 인하여 생겨난다는 기존의 ‘인상지설’을 수용하고, 나아가 ‘상(想)’이라는 글자를 파자(破字)하여 상(象)과 불에 대한 비유를 들어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였다. 즉, 불(꿈)은 物(상념)로 인하여 나타나고 물이 다 타버리면 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불과 꿈의 원인이 되는 물과 상념은 또 무엇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사유를 계속 확대해나가면 결국 이 세상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데에 귀결된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몸과 세상도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논하여 인간의 인생 역시 한갓 꿈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인용문에서 ‘여환’은 『원각경(圓覺經)』에 나오는 말로, 이 세상의 일체 현상이 모두 환(幻)처럼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육용정의 꿈에 대한 인식은 많은 부분 불교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꿈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사유방식으로 기존의 몽유록이나 기몽류 작품에서도 흔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육용정에게 있어 꿈은 소재적 차원이 아닌, 바로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큰 개념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이점이 있다.

> 꿈속에서 어찌 꿈인지 알 수 있겠는가. 깬 후에야 비로소 꿈이 꿈이라는 것을 아니. 어째서인가. 꿈은 자는 것이요. 진(眞)은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사람이 잘 때는 알지 못하다가, 깬 이후에야 비로소 전에 잤던 것이 잠 속이었던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로 미루어보면 뱃속에 있을 때 또한 꿈이니, 그 태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전에 있던 곳이 뱃속임을 안다. 또 이를 미루어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어찌 이 세상이 꿈인지 진인지를 알겠는가. 훗날 저승에 간 뒤에야 비로소 이 세상 또한 한갓 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28]

www.kci.go.kr

10년 만에 배재학당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벗, 송계여(宋季汝)에게 준 글이다. 증서(贈序) 류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수신자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보다는, 장황한 몽설을 늘어놓고 있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그 세계가 진(眞)이 아님을 깨닫는다는 점에서, 꿈과 자궁 그리고 인생은 같은 층위에서 논해질 수 있다. 논지를 이끌어가는 방식은 <설몽>과 상이하나 '인생은 한낱 꿈이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그는 이어 송계여를 다시 만난 것이 꿈과 같고, 그의 강의를 들으니 또 황홀한 꿈속에 있는 것과 같고, 또 죽은 뒤에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면 지금 세상이 또 꿈이 아니겠냐는 말로 이 글을 맺는다. 이처럼 꿈은 바로 지나간 과거, 황홀한 순간,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한 메타포로 읽힌다. 이러한 몽설은 <서계기(西溪記)>에서도 발견된다. 이 글은 김성삼(金聖三)의 호인 '서계'에 대한 기문(記文)으로, 김성삼의 꿈-자신의 문집이 서계집이라는 이름으로 엮여져 있는 것을 본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육용정은 '대저 인생은 한갓 꿈이니, 꿈은 꿈속의 꿈이다. 이 꿈 저 꿈 할 것 없이 이상한 것이 많은데 꿈속의 꿈은 더욱 황홀하여 형용하기 어렵다.'[29]는 몽설을 부연하고 있다. 이처럼 육용정에게 있어 꿈이란 바로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주요한 개념이자 그의 문학에서 소재로 자주 운용되고 있다.

육용정은 어떠한 깨달음을 주지도 않고, 또 깊은 정서적 울림을 제시하

28) <贈汕隱宋君序>, 『宜田文藁』, 권1, 31면, 夢中何以辨夢 寤然後 乃知夢之爲夢也 何者 夢者寐也 眞者寤也 人寐時有何所知 寤然後 乃知向寐之爲寐 而知歷歷來明矣 以此推之 胎時亦一夢也 而及其生出後 乃知向居爲託胎也 又以此推之 居在斯世 何可辨其斯世之爲眞爲夢乎 及至異日上升後 乃知爲斯世 亦一夢境也 而知尤歷歷明彰矣

29) <西溪記>, 『宜田文藁』, 권1, 75~76면, 大抵人生卽猶一夢 而夢爲夢中之夢焉 無論此夢彼夢多有其異 而就中夢中之夢 尤爲恍惚難狀

www.kci.go.kr

지 못하는 꿈마저 그의 문학에 세세하게 기록하고 심지어 시작품에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물고기가 새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본 꿈을 그대로 오언절구로 옮기기도 하고[30], 꿈에 선계를 본 이야기를 읊기도 하였다.[31] 그가 스스로 '평소에 꿈을 꿀 때마다 기록하여 설을 만들었다.'[32]라고 고백하였듯이 꿈에 대한 소소한 기록은 그의 문학의 한 단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살펴보았듯 많은 부분 불교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지한 종교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는 기독교의 영혼불멸 사상까지 끌어와 몽설을 펼치기도 하는데,[33] 이는 그의 꿈에 대한 인식이 종교적 신념에서 출발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의 몽설이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진이 있다면 나는 이 꿈에서 근심할 것이 없지만, 만약 진이 없다면, 내 어찌 이 꿈을 즐기겠는가.'[34]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육용정에게 꿈, 인생은 무상한 것이기 보다는 흥미롭고 황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꿈에 대한 인식은 그의 상변론(常變論)과 맞물려 있다. 육용정은 다수의 글에서 꿈 뿐 아니라, 상과 변으로 세상에 대한 인식을 표출하였다. 황재문이 지적하였듯 그의 글에서 현실을 움직이는 원리로, 명(命), 상, 변은 자주 활용된다.[35] 흥미로운 것은 그의 상변론이 실상 '상'보다는

30) <丁亥十月十九日記夜夢所見>,『宜田詩藁』

31) <夢入靑田道中>, 『宜田詩藁』

32) <遺夢>,『宜田文藁』, 권2, 93면, 宜田子於平居有夢 每夢輒記之 以爲說

33) <贈汕隱宋君序>,『宜田文藁』, 권1, 30면, 西書有云 人死而靈魂不滅 上升明明此果其眞耶

34) <贈汕隱宋君序>,『宜田文藁』, 권1, 30면, 如有其眞 吾無憂於此夢也 如無其眞吾何樂乎此夢也

www.kci.go.kr

‘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를 견고하게 고정된 형태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

> 동은! 인간 세상은 모두 뜬구름이나 흘러가는 거품 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네. 석가는 이 때문에 따로 한 길을 열었지. 지금 구름이 푸르른 하늘에서 생겨날 때 혹 하나의 점 하나의 물방울처럼 되기도 하고 혹은 하늘을 두껍게 가리기도 한다. 거품이 큰 바다에 생겨날 때도 혹 돌이나 자갈 같기도 하고 혹은 바다 가득 일렁이기도 한다. 그 사이에 진실로 대부분 절로 사라지는데 결국 크게 뒤집어지는 것은 바람 때문이다. 인간 세상에 참으로 선악 장단이 섞이는 것이 같지 않은데 결국 크게 뒤집어지는 것은 운 때문이다.……만물에는 리(理)가 있으니 상(常)이 있으면 변(變)이 있다. 상만 있고 변이 없으면 이는 물이 아니다. 경(經)이 있으면 권(權)이 있으니, 경만 있고 권이 있으면 리가 아니다.[36]

승려 동은에게 준 글로 불교에 대한 비판을 펼친 사념적인 글이다. 여기서 그는 뜬구름과 흘러가는 거품으로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데, 금방 생겨났다가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설몽>에서의 꿈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는 바람, 즉 운(運)으로 인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기기도 하지만, 상이 있으면 변이 있음을 인식하여 순히 받아 보내는 것이 올바른 처세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문을 닫고 별도로 불교에 귀의하기 보다는, 변에 적응하여 살 것을 설득하였다.

---

35) 황재문, 위의 책, 47~50면

36) <送東隱上人序>,『宜田文藁』, 권1, 27면, 曰隱 人世都是浮雲流泡上起滅 釋伽氏爲是 而創開別一路景耶 今浮雲生碧落 或有一點一沫 或有重服蔽天 泡生大洋或有如石如礫 或有彌滿溢海 其間固多有自爲消息 而畢竟有大飜覆者風也 人生世間固多有臧否長短參差倒錯之不同 而畢竟有大飜覆者運也……凡物有其理 有常則有變 有常而無變 是無物也 有經則有權 有經而無權 是無利也

www.kci.go.kr

이러한 논리는 <사향부(思鄕賦)>에서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다른 작품에서도 육용정은 자주 서울에서 유폐된 자신의 신세를 굴원의 그것과 비교하곤 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어부사(漁父辭)>의 구조와 내용을 직접적으로 차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달래고 있다. 고향을 떠나 허송세월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을 것을 다짐하는 의전자에게 객이 나타나 꾸짖는다.

> (객이 말하길……)"지금 세상의 변화는 참으로 고금 이래 천지에 기운이 한번 크게 변한 것이지만 이 역시 천지자연의 기수(氣數)이다. 사람이 상심할 것이 어찌 있겠는가. 만나는 대로 잘 보내는 일 만한 것이 없다. 이 또한 도를 행하는 한 변법(變法)이다. 도가 일정할 때[常]에는 상(常)으로 지키고, 도가 변할 때에는 변으로 응해야하니 행동은 다른 듯하지만 실상은 하나이다. 그대는 어찌 대도를 작게 보는가. 성인 또한 세상과 함께 변하였다."하니, 의전자가 듣고 나서 무안해져서 물러갔다.[37]

세상의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굴원의 <어부사>와 그 논리가 유사하나, 어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마무리한 <어부사>와는 달리, <사향부>는 객의 가르침을 의전자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글을 맺고 있다. 도가 변했으니 변으로 응하라는 객의 주장은 <설몽>에서의 육용정의 목소리와 일치한다. 기존 유가 사유체계에서 불변하는 것으로 인식해왔던 도와 리(理)가 육용정에게 있어서는 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늘은 변하지 않으니 도도

37) <思鄕賦>,『宜田文藁』, 권1, 124~125면, 今次時變 固是古今來天地之一大氣運也 而然此亦天地自然之氣數也 豈可以人之傷歎爲哉 無如隨遇而理遣之爲可也 此亦行道之一變也 道之常耶 守之以常 道之變耶 應之以變 行似有殊 而其實則一也 子何小視大道 聖人亦有與世推移也 宜田子請罷 乃憮然而退焉

www.kci.go.kr

역시 변하지 않는다(天不變 道亦不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면, 도도 역시 변한다(器變 道亦變)"[38]는 새로운 사유 구조가 육용정의 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상 살펴보았듯 기몽연작 중 <설몽>에서의 꿈에 대한 담론은 단순히 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단서로 작용한다. 이는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 세계에 대한 일종의 메타포로 읽힌다. 이러한 담론에서 고정되지 않고 황홀하게 변화하는 꿈의 이미지가 강조되는 것은, 그의 상변론-패러다임마저도 변할 수 있다는 인식과 어느 정도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억압, 그러나 회귀되는 욕망

기몽 연작 중 <설몽>에서 꿈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직접 피력하였다면, 이후 작품에서 육용정은 허구를 통해 자신의 내밀한 욕망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육용정은 자신의 몽상에서 스스로를 주인옹인 의전자로 허구화시키고, 진장유와, 문비, 그리고 환진을 자신의 손님 혹은 벗으로 설정하고 있다. <안두총담>에서는 왕리와 곡흠 두 신이 의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살아, 절연하기 어려운 관계로 설정되고 있다. 이에 그의 세 벗 혹은 두 신은, 바로 의전자의 내면의 세 가지 또는 두 가지 층위를 상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의전자에 대한 논평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 가능할 것이다. '문사도 아니고 유자도 아니고 달사도 아닌, 다만 성세에 무용한 한 사람이오.'[39] 라는 언급은 이 세 벗의 특징을 모두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

38) 이명수, 「로컬적 주체성과 역동적 경계로서 근대적 자아」, 『유교문화연구』16, 유교문화연구소, 2010, 257면.

39) <文斐傳>, 『宜田文藁』, 권2, 104면, 子則非文非儒非達 直爲一聖世之無用件也

www.kci.go.kr

리고 이는 실제 육용정의 모습과도 중첩된다.

진장유는 전통적인 유학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의 전(傳)에는 부모상을 극진히 모시고 학행이 뛰어난 인물로 표현되어, 기존의 인물전・행장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투적인 칭송들이 나열되어 있다. <안두총담>에는 그의 형상이 왕리(王?(天+里))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王天里의 합자로 보인다. 왕리, 즉 진장유는 바로 유가 이념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라 하겠다. 그는 의전자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 가치들을 내재화할 것을 강요하며 끊임없이 그의 교유와 진퇴를 상관한다. 유가적 이념으로 의전자를 장악하고 있는 진장유는 바로 의전자의 초자아를 형상화하고 있다. 의전자는 그 덕분에 자신이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기에 이에 장유를 공경한다고 하였다.[40] 그를 '외우(畏友)'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그의 지시에 복종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복종이 철저히 내재화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의전자는 진장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나가기도 하였으며, '끝내 고금을 참작(參酌)하지 못하며', '규모가 지나치게 치밀하고 모가 났으며 앞뒤로 꽉 막혀서, 포용하는 뜻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진장유에 대한 소극적 거부감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의전자는 초자아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거부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문비는 문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문비의 형상이 다른 인물에 비해 다소 모순적으로 그려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문비전>에서는 "가법을 따라 뜻을 독실히 하여 힘써 학문을 하고, 전장(典章)과 제도(制度)도 익숙히 잘 알며, 사한(詞翰)을 전공한"[41] 인물로 표현되는

40) <宜田子傳> 宜田文藁』, 권2, 100면, 宜田子之居常 無大過惡 幸補度過者 寔長孺之規諷所致 故宜田子 每敬重長孺焉

41) <文斐傳>,『宜田文藁』, 권2, 103면, 襲循家規 篤志力學 嫻掌故工詞翰

www.kci.go.kr

데, 이는 앞서의 진장유의 형상과 많은 부분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바탕, 학문에도 불구하고 문비는 뛰어난 재주와 지나친 기교로 자신이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는 인물로 비난받는다. <문비전>에서 술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이탁주는 “저 사람은 문사인가? 참으로 마음과 입이 같지 않으니, 사람들이 많이 속는다. 법을 어지럽히는 자가 꼭 저 무리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데도 언필칭 선왕이라 하는 구나.”[42]라고 하며, 그의 모순성에 대하여 공격하였다.

> 의전주인이 한참 글을 쓰느라 먹과 종이를 좌우에 두고 책을 낭자하게 벌려두고는 골몰하여 달리 손님을 접대할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문재도(文載道)란 자가 담포(淡袍)와 녹대(綠帶)를 하고 천천히 왔는데 온화하고 단정하며 용모가 매우 단아하였다.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하였다.
>
> “나는 문신이다. 나와 환진은 그대에게 있어 모두 의(義)가 있으니 똑같이 일체(一體)라고 하겠다. 그대가 평소에 우수에 젖어 만족하지 못할 때 마다 환진이 먼저 이끌어 이경 별계에 많이 노닐었고, 나는 그때마다 따라다니며 기술하여 그대를 즐겁게 하였다. 족적이 명산가수에 두루 미쳤으니, 그대가 소요하고 마음을 푼 것이 이에 이미 족하였다.”[43]

<몽자대>에서 문비는 단아한 선비의 모습을 한 인물로 ‘문재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명칭은 유가적인 문학관을 대표하는 말인데, 실제 문

42) <文斐傳>, 『宜田文藁』, 권2, 106면, 這漢子是文士乎 定是心口不同 人多見欺 亂法之人 未必非此輩 而猶言稱先王乎

43) <夢者對>, 『宜田文藁』, 권2, 96면, 宜田主人時方著書 左鉛右槧 卷籍狼藉 心鶻突 不遑他接 客有文載道者 淡袍綠帶 冉冉而來 雍容整暇 貌甚雅馴 請於主人曰 我文神也 我與幻眞 於子俱有 義同一體 子於平居每憂愁不通 則幻眞寔先導之多遊異境別界 我輒隨而記述之以娛子 足跡殆徧於名山佳水 子之逍遙暢敍 於斯已足

www.kci.go.kr

재도의 성격은 이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 문재도는 쫓겨난 환진을 대신하여 진장유의 질책에 항변한다. 환진과 그는 바로 '일체'이며 의전자가 환진을 따라 유람하면 그는 그것을 따라 기록한다고 하였다. 이는 꿈과 문학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며, 기존 연구에서도 허구와 문학에 대한 비유로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다. <안두총담>에서는 아예 환진의 인물유형에 흡수되어 진장유와의 갈등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논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기몽>에서 형상화된 문은 전통적인 '재도지문' 보다는 오히려 '완물상지'로서의 문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는 실제로 희작적 성향이 다분한 육용정의 문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환진은 불교를 배운 인물로 '너무 허황되고 실제가 없는 자'로 설정된다. 광사(狂士)이기에 그와 사귀는 것은 애초에 진장유를 비롯한 뭇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전에는 진장유, 문비의 전과는 달리 많은 부분 불교적, 도가적 상상력이 개입한다. 이러한 환진은 꿈의 형상이자, 동시에 욕망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안두총담>에서는 곡흠(谷欠)으로 칭해지는데, 이는 '人欲'을 파자한 것으로 이해된다. 꿈이란 원래 욕망의 발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러한 육용정의 설정은 흥미롭다고 하겠다. 소설론의 관점에서 '허구'로 해석하기 이전에, 환진이 바로 '욕망'의 환유라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꿈, 욕망의 형상인 환진은 진장유와 완전히 대비되는 형상으로 그려지며 끊임없이 그와 충돌한다. 육용정은 <안두총담>에서 왕리가 의전자의 집 중앙에서 거처하는 반면 곡흠은 곁방에서 지낸다고 하였다. 이는 곧 밖으로 표출되기 어려운, 그리하여 내면의 깊숙한 곳에 거처하는 욕망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욕망과 꿈은 본질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속성을 가진다. '리의 변화는 비록 하루에 만 번을 변하더라도 그 모습과 체는 하나였고, 흠의 변화는 장차 하루에 만 번 변하여 그 형상과

www.kci.go.kr

체가 하나가 아니었다.'[44]라고 언급하였듯이, 왕리가 엄격하면서도 한결 같은 이념의 표상이라면 곡흠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겠다.

성격이 다른 세 층위가 함께 공존하는 것은, 각각 '향취와 악취가 나는 풀을 한 그릇에 담는 것과 같아' 이에 대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의전자를 두고 세 벗은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진장유는 환진을 계속 억압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문비는 환진을 변호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의전자가 진장유보다도 환진과 문비에 경도되어 있는 데서 발생한다. 이들과의 관계는 '방외의 사귐〔方外之敎〕'이라고 명명되기도 하면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교유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거론된다.

> 무릇 의전자가 평소에 일이 있으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던 간에 두 신이 모두 참여하여 알았고, 의전자 또한 반드시 자문한 이후에 행하였다. 그러나 의전자는 매번 리의 강정함을 꺼리고, 흠의 나약하고 사사로운 말을 들었다.[45]

<안두총담>에서도 엄격한 유가적 이념에 거부감을 느끼고, 욕망 혹은 꿈에 경도되어 있는 의전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진장유, 혹은 왕리는 이러한 의전자를 경계하여 환진 혹은 곡흠과의 교유를 끊을 것을 주장한다. 진장유는 먼저 <견몽>에 등장하여 <설몽>에 사용한 불에 대한 비유를 그대로 쓰면서 의전자의 인상지설을 반박한다.

---

44) <案頭叢談>, 『宜田文藁』, 권2, 113면, ?(天+里)之爲變也 雖一日萬變 其狀其體一也 伙之爲變也 將一日萬變 其狀其體不一

45) <案頭叢談>, 『宜田文藁』, 권2, 113면, 凡宜田子者之平日有所事爲 無論顯微 彼二神無不參知之 宜田子亦必咨而後行之 然宜田子 每憚王?(天+里)之剛正 而聽伙之柔私焉

www.kci.go.kr

향에 타는 불과 똥에 타는 불이 그 냄새가 다르듯이, 꿈을 꾸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사실 <기몽>에서 미인을 쫓아가다가 봉변을 당하는 꿈은 환로에 대한 욕망이 발현된 것으로 난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진장유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여 어지러운 꿈을 꾸지 않을 것으로, 즉 환진과의 교유를 끊을 것을 주장한다. 의전자는 그의 말에 순응하지만, 꿈 그리고 문에 대한 억압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

나는 듣고 부끄러워하여 글을 올려 감사를 표하려 하자. 그 사람이 노하며 말하길, “화려하게 꾸밀 뿐 감히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는구나.”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였는데 일어나보니 이 또한 꿈이었다. 이로 인하여 묵묵히 생각하길, ‘이상하도다, 이상하도다. 내가 전후에 비방을 받은 것이 모두 꿈을 숭상하였기 때문이니, 꿈은 참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마침내 글을 지어 몽신(夢神)을 불러 돌려보내었다. 그 신은 환진(幻眞)이라고 한다. 그 글에 이른다.

요조한 환진이여
그대와 함께 살아가자고 기약했었는데,
내 마음이 천박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시끄러운 것을 두려워해서.
그대를 소상(瀟湘)과 동정(洞庭) 사이에 보내고자
이미 수레에 기름을 바르고 말에 꼴을 먹였네.
비단 이불은 빛나고 각침(角枕)은 번쩍이는데
홀로 누워 슬퍼한다.
다른 곳에서 살아도 같은 곳에서 죽으리.
누가 이 뜻을 빼앗았나.
나더러 신의 없다 하지 마소

www.kci.go.kr

내 마음은 저 밝은 태양과 같네.

【어떤 이는 내 마음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아직도 꿈으로 대한다고 책망하고 어떤 이는 내 마음이 아직 공교로운 것을 숭상하여 아직도 글로 답한다고 꾸짖었다. 의전씨의 꿈과 말은 자신의 병이라 할 수 있다.】[46]

진장유의 질책을 듣고서는 글을 써서 그에게 사례를 표하려다가 오히려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꾸짖음을 듣는데, 이어 각몽과정이 나옴으로써 이것마저 꿈이었다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꿈속에 꿈을 설정한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꿈에서 헤어 나오기 힘든 작자의 모습을 대변한다. 이에 또 의전자는 축문 형식의 글을 써서 환진과의 이별을 고하는데, 이것 역시 글에 대한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축문에는 시경의 문구를 가져다썼는데 '窈窕', '言秣', '錦衾'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환진과의 관계를 마치 부부로 묘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환진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남의 비방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임을 누차 변명하고 있다. 이처럼 <견몽>은 아이러니한 상황의 반복이라 할 수 있다. 꿈과 글에 대한 집착을 끊으리라 결심하지만, 이에 대한 발상이 꿈을 통해서 진행되고, 또 글로 실어 거듭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 다시 꿈, 글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작자의 욕망이 더 이

46) <遣夢>, 『宜田文藁』, 권2, 95면, 余聞之感愧 方欲陳辭謝之 則其人怒曰 燁燁不敢納款 乃懼然而覺 是亦一夢也 因暗思于心曰 異哉異哉 余之前後致謗 無非夢爲之祟 夢誠不可信者也 遂點綴爲文 招夢神而遣歸之 其神曰幻眞 其辭曰 惟幻眞之窈窕兮 期與子而契闊 非吾誠之淺薄兮 畏人言之煩聒 送子于瀟湘洞庭之間兮 旣載脂而言秣 錦衾爛而角枕燦兮 耿獨寢而悼怛 雖穀異而死同兮 詎斯志之見奪 勿謂余之少信兮 有如彼之皎日 【人有誚其心之未定 而猶對之以夢 人有誚其心之尙巧而猶答之以辭 宜田氏之夢與辭 可謂自家心疾矣】

www.kci.go.kr

상 절연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준다.

기몽 연작의 결말은 둘로 달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결말은 꿈과의 결별이다.

> 수년전 어느 날 밤에 홀연히 뇌우가 쳐서 어둠과 밝음을 헤아릴 수 없었는데, 온갖 귀신이 사방에서 난동을 피우고 흑운 구름무리가 빽빽하게 와서 대둔사를 둘러쌌다. 잠시 뒤에 비가 조금 걷히자 하늘이 밝아졌다. 절 주위에 사람들이 환진이 성관(星冠)을 쓰고 월패(月佩)를 차고 은은하게 동남쪽 자기(紫氣) 가운데에 있었는데 따르는 관원 수십 명이 수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47]

억압되어 축출된 꿈은 오히려 더 확대 발현된다. <몽환진전>에서 환진은 의전자와 결별한 이후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이르는 만국을 유람하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다. 인용문에서 보듯, 결말에서는 도가적 상상력이 개입되어 더욱 환상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의전자와의 결별 이후에도 환진에 대한 서사가 지속되는 것은 작자의 관심, 혹은 의전자의 의식 밖으로 환진을 완전히 몰아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앞서 미완성으로 맺은 <의전자>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진다.

또 다른 결말은 <안두총담>에서 제시되는데, 곡흠과 왕리가 의전자의 중재로 화해를 하여 불안한 공존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에 각자 인사를 마치고 가버렸다.'는 갑작스런 종결은,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 상태가 아닌,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두 결말은 상이하나, 결국 환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곡흠이

47) <夢幻眞傳>, 『宜田文藁』, 권2, 109면, 數年前某日之夕 忽雷雨晦暝不測 百鬼四面亂動 自黑雲隊裏森然而來 圍繞大芚寺 俄而雨少霽 而天且開明 寺傍人見幻眞以星冠月佩 隱隱在乎東南間紫氣中 而有從官數十隨行云

www.kci.go.kr

“내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의전자가 스스로 한 것이며 나는 따라서 응한 것뿐이다.……의전자가 품부 받은 기운은 본래 좋지 못하니 천리의 바름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인욕이 사사로이 틈타는 것을 자기 스스로 없애지 못한다.”[48]고 하였듯이, 꿈에 대한 억압이 실패한 것은 궁극적으로 의전자의 기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의전자 역시 자신의 꿈, 글에 대한 집착을 병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옛날에 한 학동이 그림을 몹시 좋아하였다. 대나무를 그리는 것을 매우 잘하였는데 학문은 게을리 하였다. 스승이 매질을 하자 그 학동이 울어서 눈물이 서판 위로 떨어졌다. 학동은 이에 손가락으로 눈물자국을 이어서 대나무 잎을 만들었는데 매우 근사하였다. 스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네가 그림을 잘 그리긴 잘 그린다.”하고 마침내 매질을 그쳤다.[49]

스승에게까지 혼나면서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그리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벗이자 태어나면서부터 함께하였던 꿈, 문학과 결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유가적 사유를 학습하고 내재화한 육용정으로서는 몽상을 하고 유희적 글쓰기를 하는 것은 억압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리하여 유가적 사유는 진장유 혹은 왕리의 모습으로 형상되어 이러한 욕망을 억제할 것을 그에게 반복해서 지시한다.

---

48) <案頭叢談>, 『宜田文藁』, 권2, 114면, 此非我之所誘 乃宜田子之自爲也 而我則不過從而應之而已 如以被誘 子則何不善誘反覆 而使之聽子 蓋欲生於氣 而理則隨其氣而行焉者也 宜田子所稟之氣 本是未善 天理之正 何從而生焉 而自不能無人欲之私乘之也

49) <遣夢>, 『宜田文藁』, 권2, 96면, 昔有一學童癖于畵 嘗畵墨竹甚善 怠于學 其師撻之 那童泣而涕零書板上 童因指畵涕點爲竹葉 絶似焉 師笑曰 童善則善矣 遂止之

www.kci.go.kr

이와 같이 이념과 욕망의 충돌은 이전 시대에 홍길주의 <여의침(如意枕)>에 등장하는 베개와 같이 처음에는 베고 자는 자들의 욕망을 이루어 주는 듯하나 모두 파국을 맞이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육용정에서는 그 욕망을 제어하고자 하나, (그리하여 꿈을 꾸지 않고자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이미 19세기 말 육용정에게 오면 더 이상 억압기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육용정의 기몽은 바로 한문학 작자층이 보유한 유가적 사유의 균열과 욕망을 다루고 있는 흥미로운 텍스트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육용정의 기몽 연작은 지극히 사적이고 희작적 성격이 강한 창작물이지만 19세기 말 한문학 작자층의 변화하는 현실인식 및 내면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그의 꿈에 대한 담론은 상념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이미지가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히 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단서로 확대된다. 이러한 담론은 당대 변화하는 세계상에 주목한 그의 상변론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기몽연작에서 허구화된 꿈은 제어할 수 없는 내밀한 욕망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는 당시 급변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억압기제를 해제하고 본연의 자아를 발견하고자 하는 작자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 한문학 작자가 도덕 주체에서 탈피해 인간의 욕망 및 정감을 인정하는 과정을 보

www.kci.go.kr

여준다는 점에서 육용정의 작품은 흥미롭다. 이전 시대 한문학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자기 내면에 대한 깊은 탐구가 이 시기에 나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몽 연작은 이전 18세기부터 시도된 문예의 변화, 그 연장선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 및 문단의 판도가 달라지는 19세기 말 시대적 상황이 그 일탈을 자극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육용정 외에도 다른 한문학 문인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병행되어 일정한 작가군이 형성된다면, 19세기 후반 한문학사의 외연이 새로이 구축될 것이며, 나아가 고전 문학과 근대 문학 사이의 연계 고리도 재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陸用鼎, 『宜田文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陸用鼎, 『宜田詩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陸用鼎, 『宜田續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鄭景淳, 『修井遺稿』, 규장각 소장
睦萬中, 『餘窩文稿』卷42, 규장각 소장
尹愭, 『無名子集』冊13, 한국문집총간
안대회, 「조선후기 자찬묘지명 연구」, 『한국한문학회』31, 한국한문학연구, 2003년, 237~266면
백승종, 「宜田記述을 통해서 본 陸用鼎의 開化思想」,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84, 1~56면
민회수, 「1880년대 陸用鼎의 현실인식과 東道西器論」,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1, 1~76면
김문용, 「1880년대 후반기 동도서기적 개화론의 一端에 대한 검토-육용정의 『의전기술』을 중심으로-」,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교류』, 국학자료원,

www.kci.go.kr

2004, 167~186면
신재홍,『한국몽유소설연구』, 계명문화사, 1994, 405~428면
김경미,『소설의 매혹』, 월인, 2003. 1~302면
황재문,「의전 육용정의 문학과 현실인식」,『한문학보』22, 우리한문학회, 2010, 33-67면.
이명수,「로컬적 주체성과 역동적 경계로서 근대적 자아」,『유교문화연구』16, 유교문화연구소, 2010, 255~277면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Gi-mong serial works written by Yuk Young-jeong

Ha, Ji-young*

This article approaches the Gi-mong serial works written by Yuk Young-jeong which shows new written style in 19 century. This serial works are composed of nine short compositions. While borrowing from traditional Chinese writing, these experiment with deviations and variations in various ways. These are rare works in Chinese classical prose, because all of work has one theme and is intimately connected to one another, and one episode is reconstructed of a variety of styles.

In Gi-mong serial works, the dream should be discussed in two ways. In 〈Seol-mong〉 constant changing image of dream in strongly emphasize, that can be understood as a metaphor for those fast-paced times. In others, by building fictional character-'Whan-jin' and 'Goek-Hum'-that can be understood as deep desire of the writter for discovering self and deconstructing suppression mechanism. It is interesting the exploration of the deepest reaches of the human mind appeared in those times.

Gi-mong serial works can be discussed in an extension of changing in literature from 18 century. Also changing circumstances of the Late 19th-Century stimulates the desire for deviation.

Key Words dream, desire, Gi-mong, 19th-Century, Yuk Young-jeong, Eui-jeon-ja.

논문투고일 : 2010. 10. 15
심사완료일 : 2010. 11. 26
게재확정일 : 2010. 12. 3

* Ewha Women's University.

www.kci.go.kr